‘진교’를 찾아서

이익섭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On the Korean common name of *Aconitum pseudolaeve* Nakai

Iksop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우리 식물 이름 중에 꽤 기구한 역사를 겪은 것들이 있다. 미나리아재비과의 ‘진교’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만하다. 국어사전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지만, 간단히 식물도감 몇 개만 뒤져도 이 단어의 기구한 운명을 이내 헤아릴 수 있다.

즉 많은 식물도감에는 ‘진교’라는 이름 대신 ‘진범’이라는 이름만 있는데 더러는 ‘진범/진교’의 두 이름이 병기(併記)되어 있는가 하면 李永魯의 『韓國植物圖鑑』(教學社, 1998 및 개정판 2006)과 현진오의 『가을에 피는 우리 꽃』(신구문화사, 2004)에는 ‘진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앞 책에는 “진범은 잘못된 명칭이고 진교가 참된 명칭임”이라는 부기(附記)까지 있다.

무엇이 어떻게 엮혔던 것일까? 어느 기회에 현진오 박사로부터 ‘진범’은 ‘진교’의 ‘교’를, 그 한자(漢字)를 잘못 옮겨 적은 데서 비롯된, 말하자면 엉터리 명칭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¹⁾ 이 글은 그것을 추적해 본 조그만 탐험기라 할 수 있다.

2

‘진교’의 ‘교’가 ‘범’으로 잘못 옮겨지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있을 법한 일이라는 한 것일까? 우리의 궁금증은 우선 여기에서 시작된다.

먼저 그 한자(漢字)부터 찾아보기로 하자. ‘진교’의 한자는 ‘秦艸’로 되어 있고, 진범의 한자는 ‘秦艸’로 되어 있다. 결국 ‘艸’자를 ‘范’자로 잘못 옮겨 적었다는 이야기다. 글자 모양이 이런 정도로 비슷한 것이라면 충분히 있었을 법하다. 특히 필사본(筆寫本)의 글씨는 약간만 흘려 써도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비록 또 박도박 해서(楷書)로 인쇄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이가 마모되었

다든가 더럽혀지더라도 하였으면 이만한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전(字典)을 뒤져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의 『大漢和辭典』(수정판, 1984)의 ‘艸’자항에 보면 「參考」항을 따로 마련하여 ‘艸’자가 ‘范’자(및 ‘汎’자)와 별자(別字), 즉 별개의 글자라는 주의사항이 있다. 어떻게 보면 꽤 기이하게 보이는 주의사항이다. 멀쩡히 다른 글자를 놓고 각각 다른 글자라고 사족(蛇足)을 붙인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두 글자(내지 세 글자)를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중요한 증언일 것이다. 이 「參考」항은 사실은 『康熙字典』에서 세 글자가 비슷하나 음(音)과 뜻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풀이해 놓은 내용을 옮겨 베껴놓은 것인데 그렇게 보면 두 글자의 혼동 사태는 역사가 길고, 특히 그것이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秦艸’를 ‘秦范’으로 오기(誤記)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 중국의 어떤 책에서 이미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설사 그 오기의 실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실수가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어느쪽으로 보아도 ‘秦范’이 잘못 태어날 만한 조건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3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秦范’을 ‘진범’으로 읽어 버린 것이 그것이다. 자전(字典)에 가서 ‘범’으로 읽히는 글자를 다 뒤져도 ‘范’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 읽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范’자를 찾아보면 그 발음이 ‘방’으로 나와 있다. 앞의 『康熙字典』의 주의사항에서도 이 글자의 발음을 ‘蓬’으

*mosanilee@komet.net

1) 가볍게지만 글로 발표한 것도 있다 하나 찾지 못하였다.

로 보이고 있다. ‘봉’을 엉뚱하게 ‘범’으로 읽은 것이다. 누군가가 ‘凡’자를 그 아래쪽의 ‘凡’자에 이끌려 어림짐작으로 ‘범’으로 읽은 게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비슷하여 ‘秦凡’은 어느새 ‘진봉’이 아닌 ‘진범’으로 굳어져 갔을 것이다. ‘진교’에서 ‘진봉’으로 헛디딘 발이 다시 ‘진범’으로 한 걸음 더 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king을 옮겨 적으면서 k자를 h자로 잘못 보고 hing으로 적어 놓고는, 이번에는 h자의 발음을 ‘ㄴ’음으로 잘못 알고 hing을 ‘닝’으로 읽은 것과 같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킹’이라 해야 할 것을 ‘닝’이라고 하면서 국어사전 등에 버젓이 ‘닝(king)’과 같은 괴이한 단어를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연속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런데 이상의 사건들이 언제쯤 발생하였을까? 1824년에 간행된 柳僖의 『物名考』에는 ‘秦凡’만 나온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秦凡’가 분란을 겪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에 간행한 『朝鮮語辭典』에도 ‘秦凡(진규)’가 ‘秦瓜(진과)’ 및 ‘秦紉(진규)’와 함께 올라 있다. ‘秦’자 대신 ‘紉’자가 쓰이긴 하였으나 자전에 보면 이 두 한자는 어느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凡’의 발음이 ‘교’가 아니라 ‘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凡’자의 발음이 ‘교’ 외에 ‘구’와 ‘규’로도 읽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秦瓜’ 및 ‘秦紉’는 자전에도 ‘秦凡’의 이명(異名)으로 올라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1920년까지도 ‘秦凡’는 제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것이 1937년에 朝鮮博物館研究會에서 간행된 鄭台鉉·都逢涉·李德鳳·李徽載의 『朝鮮植物鄉名集』에 오면 ‘진범(秦凡)’으로 둔갑한다. 그런데 그 후 1950년에 간행된 文世榮의 『國語大辭典』에는 다시 ‘진규(秦凡)’가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큰사전』(1929-1957)에서는 표제어로는 ‘진범(秦凡)’을 올려놓았는데 그 원말은 ‘진규(秦凡/秦紉)’라고 밝혀 놓았다. 이렇게 보면 1930년대가 ‘秦凡’가 ‘秦凡’의 侵奪로 수난을 겪게 되는 그 과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그 후부터 최근까지는 아예 ‘진범(秦凡)’의 시대로 돌입한다. 각종 국어사전에 으레 ‘진범(秦凡)’이 오르게 되었고, 또 식물도감의 한 고전이라 할 만한 李昌福의 『大韓植物圖鑑』(郷文社, 1993)에도 ‘진범’만 올랐다. 이제 ‘秦凡’는 역사의 저편으로 밀려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²⁾

5

그러나 신기하게도 ‘진교’는 다시 광명을 찾는다. 무엇보다 국가가 낸 최초의 국어사전인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진교’로 바로잡혀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李永魯나 현진오의 도감 등에서도 ‘진교’로 바로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국어사전에서도 ‘진교’로 바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북한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분란을 겪었는지 1962년에 과학원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말사전』에는 ‘진범(秦凡)’이 올라 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부터는 ‘진교’로 바로잡아 놓고 있는 것이다.³⁾ 1992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말대사전』과 2004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말사전』에서도 ‘진교’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다만 그 설명은 좀 바뀌는데 특히 진교가 바지구과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그렇다. 그리고 동의어로 ‘진규(秦凡)’를 올려놓은 것도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다.

어떻게 이처럼 남한과 북한에서 다같이 ‘진교’로 이 식물의 이름을 바로잡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알 길이 없다. 어쩌든 오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게 되어 참으로 잘된 일임은 분명하다. 이제 식물 이름 하나를 두고 오랜 기간 겪어 온, 아니 아직도 겪고 있는 혼란을 더 이상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6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로 세우고 나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그 하나는 ‘秦凡’의, 더 정확히는 ‘凡’자의 발음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초기에는 ‘凡’가 ‘규’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凡’의 세 가지 발음 ‘구’, ‘규’, ‘교’ 중 ‘규’로 읽은 것이다. 자전에 보면 세 가지 발음 중 ‘구’로 읽힐 때는 황량하다는 뜻이므로 해당되지 않았으나 ‘규’로 읽힐 때와 ‘교’로 읽힐 때는 그 뜻이 같은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秦凡’는 ‘진규’로 읽힐 수도 있고 ‘진교’로 읽힐 수도 있었는데 초기에는

- 2) 아주 최근에 간행된 이우철의 『한국 식물명의 유래』(일조각, 2005)에서는 ‘진범’만 올리고, 그것이 한자어 ‘秦凡’에서 온 것이나 그 유래는 미상이라고 해 놓았다. ‘秦凡’라는 뿌리가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아물아물해져 간 현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듯하여 흥미롭다.
- 3) 참고로 그 풀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의 한 가지. 깊은산 나무 그늘 밑에서 사는데 키는 60센티미터 안팎이고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5-7개 갈라졌다. 7-8월에 연보라빛의 투구모양꽃이 핀다. 뿌리는 오래 되면 섬유소만 남아 서로 엉킨다. 마른 뿌리를 특약엽, 류마치스, 폐결핵 등 치료에 쓴다.” 그리고 <같은말>로 ‘망사초’, ‘망초’를 올려놓고 있다.

전자로만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위로 후세에 ‘진교’로 굳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物名考』에는 한자(漢字)로만 표기되어 있어 발음은 알 수 없고, 총독부 사전이나 文世榮 사전 및 『큰사전』에는 ‘진규’로 나타날 뿐 ‘진교’는 흔적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그 ‘진규’를 밀어내고 ‘진교’가 자리잡는다. 대개 ‘진범’으로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진규’가 아니라 ‘진교’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뭔가 깊은 숙의(熟議)가 있었던 듯한데 그 자세한 경위는 알 길이 없다. 하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7

풀어야 할 숙제 중 다른 하나는 ‘오독도가’라는 우리 이름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표제어를 ‘진교’로 하였든 ‘진범’으로 하였든 ‘오독도가’를 이들의 동의어(同義語)로 올려놓고 있다. 『朝鮮植物圖鑑』을 비롯해 많은 도록들에서도 마찬가지다. ‘兎’를 ‘진교 교’, ‘풀이름 교’라 한 사전 외에 ‘오독도가 교’라고 한 사전(字典)도 있다. ‘진교’의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 ‘오독도가’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상하게 일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오독도가’는 『東醫寶鑑』과 『物名考』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秦兎’의 우리말 이름으로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狼毒’의 우리말 이름으로 올라 있다. 즉 『東醫寶鑑』에는 湯藥編에서 한약초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狼毒’을 ‘오독또기’로 옮겼고, 『物名考』에서도 ‘狼毒’의 우리말 이름으로 ‘오독독이’를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物名考』는 ‘秦兎’의 우리말 이름으로는 따로 ‘망초’를 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狼毒’은 무엇인가? 먼저 『物名考』를 보면 적어도 ‘狼毒’과 ‘秦兎’는 전혀 별개 식물로 되어 있다. 즉 전자는 “葉似商陸 莖葉有毛 根皮黃肉白”으로, 후자는 “葉似石龍芮而極大 六月花如葛花 根相交糾如網巾”으로 전혀 다른 식물로 기술하여 놓았다. 『大漢和辭典』에서도 ‘秦兎’와 ‘狼毒’을 전혀 다른 식물로 설명하면서 이들의 일본 명칭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달아 놓았다. 秦兎 항에는 없는 풀 그림이 狼毒 항에는 있고 또 狼毒의 경우는 독초(毒草)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한 것도 두 식물을 전혀 다른 식물로 다루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구분은 식물도감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로 李昌福의 『大韓植物圖鑑』에서 ‘낭독’은 대극과의 식물로, ‘진교(진범)’은 미나리아재비과로 다룬 것이 그러하다. 李永魯의 『韓國植物圖鑑』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예 과부터 다른 식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⁴⁾

결론적으로 ‘낭독’과 ‘진교’는 같은 식물일 수 없고, 따라서 ‘낭독’의 다른 이름인 ‘오독도가’는 ‘진교’의 이명(異名)일 수 없다. 이 점은 총독부의 『朝鮮語辭典』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즉 거기에서는 ‘진교(진규/진과)’의 이명으로는 ‘망초’를 올려놓고, ‘오독도가’는 ‘낭독’의 이명으로 올리면서 그것과 별개의 식물로 기술하여 놓은 것이다. 이는 『物名考』의 기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어서 당시까지 <낭독-오독도가> <진교-망초>의 체계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통은 文世榮 사전에서도 이어진다.

그런데 이 질서가 어느 때부터 무너져 ‘오독도가’가 ‘진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연유에서였을까? 수수께끼 같은 일이 또 한번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진교’를 벗어나 ‘진범’으로 길을 잘못 든 시기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큰사전』에서 보면, ‘진범’은 한의(漢醫) 용어로서 쥐꼬리망초의 뿌리로만 한정해서 풀이하고서는 ‘오독도가’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풀이해 놓았다. 그리고 ‘오독도가’에는 그 학명으로 *Aconitum pseudolaeve* Nakai var. *vulubile* Nakai를 달아놓았는데, 그러면 ‘레이진소’라는 일본 이름도 일본 글자로 올려놓고 있다. 그런데 이 학명은 『朝鮮植物圖鑑』에서는 ‘덩굴오독도가’의 것으로 되어 있고, ‘레이진소’라는 일본 명칭은 李永魯의 도감에서는 ‘진교’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오독도가’가 어느새 ‘진교’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큰사전』의 ‘오독도가’의 풀이는 그 후의 사전에서 ‘진범’의 풀이로 흡수된다. 즉 ‘진범’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 하나는 한방(漢方)의 약재(藥材)를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나리아재비과의 한 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풀이가 바뀌는데 후자의 풀이는 바로 오독독이의 풀이를 옮겨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독도가’가 ‘진범’의 동의어로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들여다보면 불수록 무슨 혼돈(混沌)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현재로서는 풀 길이 없다. 일부 학자들의 착오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1962년의 사전에서는 ‘오독도가’를 ‘진범’의 동의어로 하였다가 1981년 이후의 사전에는 별개의 식물로 분리하고, 특히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오독도가’를 대극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4) 李昌福의 『大韓植物圖鑑』에는 낭독은 뿌리에 毒性이 강하다는 특징을 덧붙여 『大漢和辭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점에서도 두 식물을 달리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東醫寶鑑』과 『物名考』의 전통을 되살린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선은 숙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이 ‘오독도가’와 맞물려 ‘망초’는 또다른 문제를 던진다. 앞에서 ‘망초’는 ‘진교’의 우리말 이름이라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망초’는 ‘개망초’, ‘실망초’ 등과 더불어 ‘진교’와는 아주 다른 식물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즉 ‘망초’는 국화와 식물로서 미나리아재비과의 ‘진교’와는 완전히 별개의 식물인 것이다. 더욱이 이 망초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구한말(舊韓末)에 수입된 외래종이다.⁵⁾ 우리 전래(傳來)의 식물을 가리키던 명칭이 새로 등장한 외래종의 명칭으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망초’를 ‘진교’의 이명(異名)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망초’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독도가’만 아직 숙제로 남는 셈이다. 그런데 그 ‘오독도가’가 ‘망초’의 변신(變身)과 어떤 관련은 없는지 모르겠다. 즉 ‘망초’가 떠남으로써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 자리를 채우려고 ‘오독도가’가 그리로 찾아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로서는 ‘오독도가’가 현재 살아 있는 단어이기는 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어느 방언에서든, 아니면 한방(漢方)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는 ‘오독도가’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두 식물을 혼동하여 하나로 묶어 쓰는 뒤바뀐 쓰든⁶⁾ 살아 움직이는 단어라면 거기에 맞추어 ‘오독도가’의 의미를 새로 규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어(死語)가 되었다면 ‘오독도가’는 ‘낭독’의 다른 이름의 고어(古語)일 뿐 적어도 ‘진교’의 이명일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8

좀 다른 이야기로 앞에서 지적인 대로 ‘진교’에 두 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一言)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즉 한편으로는 한방(漢方)에서 쓰는 약재의 이름으로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물 이름으로 쓰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이 정당할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른 과(科)에 속하는 식물로 기술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5) 이 식물이 들어오던 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亡草’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민간어원일 것이다. 그러나 ‘망초’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이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 이름의 새 의미와 얽혀 흥미를 끈다.

6) 진교와 낭독은 다같이 그 뿌리가 한약재(漢藥材)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두 식물이 혼동될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한 예로 ‘함박꽃’이 한편으로는 산목련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약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⁷⁾ 다만 ‘진교’를 약재에 쓰이는 뿌리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는 것은 한방에서의 용법으로 좀 특이한 용법이라는 것은 덧붙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秦艽’는 자전에 보면 풀 이름 내지 약초의 이름으로 나올 뿐 그 뿌리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국어사전에서 한 약재의 뜻으로 쓰이는 ‘진범’의 동의어로만 ‘진근(秦紉)’ 등을 들고 이들 동의어들이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 이름의 동의어일 수는 없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⁸⁾ 이들 동의어는 애초 식물 이름으로서의 ‘진교’의 동의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李永魯의 도감에서 진교의 한어(漢語)로 ‘牛扁’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物名考』에서 ‘牛扁’은 秦艽와 뿌리가 비슷하나 더 가늘고 소(牛)의 이를 퇴치하는데 효과가 커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이명으로 扁特, 扁毒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秦艽의 漢語가 ‘牛扁’이라 한 것은 성립키 어려워 보인다. 어원적으로는 앞의 秦艽, ‘秦膠’, ‘秦紉’, ‘秦瓜’ 등이 ‘진교’의 한어(漢語)일 것이며, 식물 분류상으로는 진교는 후술하다시피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한어(漢語)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끝으로 굳이 한 가지 더 챙겨 본다면 우리의 秦艽가 과연 중국의 秦艽와 동일한 식물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 중국 사전들에 의하면 그쪽 秦艽는 용담과(龍膽科) 식물로 되어 있다. 학명이 *Gentiana macrophylla* pall.로서 사진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용담, 특히 큰용담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 학명은 우리 쪽 도감에서는 색인에도 나오지 않는다. 용담이되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류인 듯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진교’는 좀 엉뚱하게 붙인 이름이다. 우리 진교는 한국 특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따로 지었어야 했을 법하다. 그런데 그 이름을 중국에서 가져 왔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겠는데 거기다가 엉뚱한 식물을 가리키는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7) ‘작약’을 ‘함박꽃’이라 부르는 것은 표준어로도 인정되어 있지만 일찍이 『物名考』에서도 ‘芍藥 함박꽃’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8) 일부 재야(在野)에서는 ‘진범’을 ‘진교’로 바로잡아 가는 일에 반발하면서 어느 한쪽은 뿌리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하여 ‘진범’을 살려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보았다. 황당하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짐작컨대 용담도 그 뿌리를 약재(藥材)로 쓰는 만큼 한방(漢方)에서 어떤 혼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앞에서 진교와 낭독이 한 식물로 묶이던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진교’는 바다를 건너오면서 용담과 식물에서 *Aconitum pseudolaeye* var. *erectum* Nakai라는 학명을 단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의 식물로 바뀌고 말았다.⁹⁾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니다. 다른 언어의 동식물명을 옮길 때 이쪽 지역에 그에 해당하는 실물이 없을 때는 비슷한 것으로 대치하는 일이 빈번히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리수(菩提樹)일 것이다. 우리의 보리수는 석가(釋迦)가 그 나무 아래에서 득도했다는 보리수와는 다르고 슈베르트가 노래한 보리수와도 다르다. ivy를 ‘담쟁이덩굴’이라 번역해 쓰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것은 포도과인 데 반해 ivy는 두릅나무과의 식물이다. 秦笏도 그것이 중국의 秦笏과 동일한 식물인지 아닌지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조그만 식물 이름 하나도 기구한 운명을 겪으려면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보았다. ‘진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 본 모습을 찾아 깨끗하게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무심히 쓰고 있는 이름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오명(汚名)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처에 널려 있지 않나 싶다.

9) 李永魯의 도감에서는 진교의 학명을 *Lycotomum loczyanum* (R. Raymond) Nakai로 달았다. 그리고 개정판(2006)에 와서는 진교속을 초오속과 나누어 설정하였다. 학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